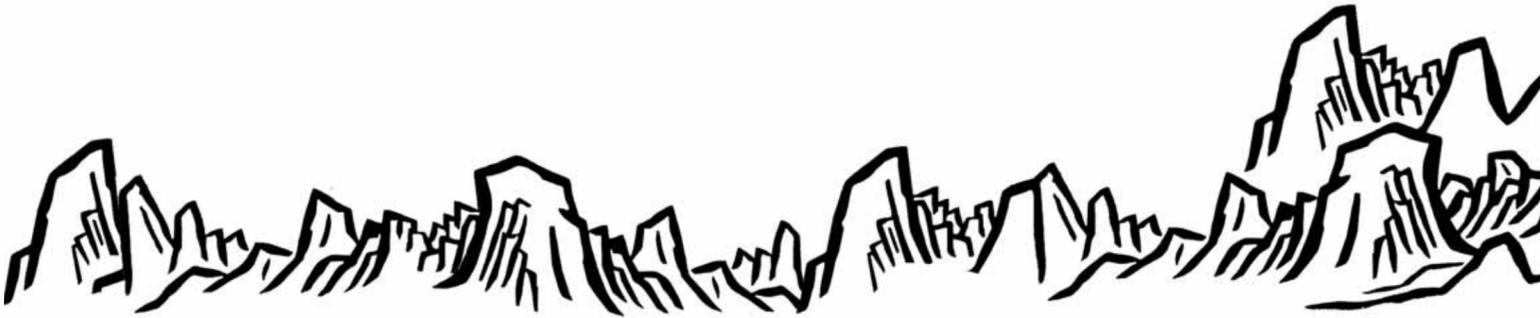


20세기 한민족 비극적 삶·통한의 역사 응축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32>

제8부 여행과 문학

④ 고향의 근현대사와 별교 태백산맥문학관

박성천 광주일보 기자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그림달이 서편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10권)의 첫 장면은 그렇게 시작한다.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아낸 작품에는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과 통한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장대한 소설의 여정은 이렇게 끝난다.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적막은 깊고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는 소리인 듯 멀리 스쳐 흐르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무덤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태백산맥’은 1983년 집필을 시작해 1986년 10월 ‘제1부 한(恨)의 모닥불’ 1~3권이 출간됐다. 이후 1989년 10월 ‘제4부 전쟁과 분단’ 8~10권으로 완간됐다. 이 기간 작가는 스스로가 만든 글 감옥에 갇혀 소설 창작에만 매달렸다.

소설에는 김범우, 염상구, 새끼무당 소화 등 270여 명이 등장한다.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정치하게 엮여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겼다. 흔히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인물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는데 ‘태백산맥’을 읽고 나면 새삼 실감이 된다. 작가가 창조한 인물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태백산맥’은 남도를 배경으로 근현대사를 다룬 소설 가운데 으뜸으로 친다. (대체적인 평가들의 견해가 그렇다) 별교가 굴곡의 역사 배경이 되었던 데는 지리적 여건과 무관치 않다. 지난 1922년 경전선 철도가 지나면서 별교는 인근 순천, 고흥, 승주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부상했다. 일제는 별교역을 전남 동부의 물산을 자국으로 실어 나르는 창구의 일환으로 전라화했다. 이로 인해 급격히 인구가 늘어 1937년에는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번다해진다. 해방 이후에는 쇠락의 기운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성군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가 만만치 않다.

별교에는 소설 속 공간들이 남아 있다. 만들어진 무대가 아닌 실재하는 공간은 상상력을 압도하는데, 명백한 실재성은 상상 너머의 현재를 강제한다. 길을 걷노라면 어디선가 열차가 달리는 환성을 듣게 된다. 시커먼 철교는 소설속 인물 염상구가 별교를 접수하기 위해 강개 왕초 땅벌과 담력을 벌였던 곳이다. 그들은 철교 한 가운데 서서 열차가 올



별교에 있는 조정래 태백산맥문학관. <광주일보 DB>

일제 강점기·해방...6·25 한국사 담은 소설 태백산맥 굴곡의 역사 배경 된 별교

보성여관·별교금융조합 현 부자집·소화의 집... 소설 속 장소 복원

태백산맥 문학관엔 조정래 작가 육필원고 지리산부터 백두산 몽돌로 제작된 ‘백두대간 염원’ 벽화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했었다. “별교에서 주먹자랑 말라”는 말은 그런 저런 연유와 무관치 않으려니 싶다.

철교다리를 지나 걷다 보면 ‘소화다리’를 만날 수 있다. 1931년 6월에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원래는 부용교(芙蓉橋)라 불렀다. 소화다리는 비극과 상처가 응집된 공간이다. 여순사건, 6·25의 격랑을 거치면서 양쪽의 세가 갈릴 때마다 총살행이 이루어졌다. 소설에는 참상의 현상이 이렇게 묘사돼 있다. “소화다리 아래 갯물애고 갯바닥애고 시체가 질펀하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해서 더 못 보겠구만이라... 사람죽이는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 허겠구만요.” 당시 포구의 갈대밭에 시체들이 뒤엉켜 있

었다고 한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는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무참히 목숨을 위해하는 이념은 극단의 악(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읍내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를 유사하게 복원한 건물도 있다. ‘보성여관’과 ‘별교금융조합’(현 별교농민상담소)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감돈다. 원래 명칭보다 소설 속의 ‘남도여관’으로 알려진 보성여관은 당시 일본인들의 중심거리인 ‘본정통’에 있다. 2004년 12월 근대사적, 생활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제132호)로 지정됐다.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보전·관리하는 보성여관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숙박동, 전시실, 다다미방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태백산맥 문학거리를 걸어 나오면 현부자집과 소화의 집을 만난다. 현부자집은 소설 첫머리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한옥과 일본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새끼무당 소화는 무당인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정갈한 여인이다. 조직의 특명을 받은 정하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의 집에 드나든다.

태백산맥문학관은 소화의 집과 현 부자네 집 근처에 있다. 지난 2008년 건립된 태백산문학관은 연면적 1375㎡(415평), 2층 규모로 육필 원고를 비롯한 159건 719점이 전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관은 작가가 생을 마감한 뒤 건립된다. 조정래 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문학관이 세워진 것은 ‘시대성’이라는 당위 때문일 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작가의 철학을 글로 엮으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경구와도 같다.



전시실에 있는 필사원고.

무엇보다 문학관에 전시된 1만 66500장의 육필 원고가 시선을 압도한다.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헐서를 쓰듯’ 글을 썼을 작가의 고뇌가 읽혀진다. 취재수첩, 만년필, 카메라, 지팡이, 한복 정장 등에서도 작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필사는 정독 중의 정독이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는 필사본 전시관에는 ‘태백산맥’을 필사했던 위승환, 김기호, 노영희 씨 등의 원고를 포함해 독자 필사본 23세트가 놓여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높이 8m, 폭 81m의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 벽화다. 모두 4만여 개의 몽돌로 제작한 웅석벽화(擁石壁畵)는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몽돌을 수집해 만들었다. 민족의 염원이 투영된 벽화는 소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소설가
- 문학박사
- 전남대 강사
-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전라도 들여다보기

보성소리와 서편제

김형주

녹차의 고장 보성은 전남 남부의 중앙에 위치하며, 예당평야 등 기름진 들판과 특랑만을 접하고 있어 쌀·감자·참다래·포파 등의 농수산 특산물이 그득하다. 보성은 풍요로운 물산의 산출과 더불어 예로부터 ‘소리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전라도에 발생의 기원을 두는 판소리 분야에서는 눈부신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성지역 일대에서 연희된 판소리를 일컬어서 보성소리라 하였다. ‘보성소리’는 서편제를 창시한 박유전의 제자인 정재근이 정음민에게 전수시킨 소리의 유파를 지칭하는데, 서편제 가운데서도 19세기말 보성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판소리의 분파인 셈이다. 한편, 박유전이 정재근에게 전수시킨 ‘심청가’를 ‘강산제’(江山制)라 하였는데, 보성소리 범주에 포함된다. ‘강산제’라는 명칭은 남원 출신의 박유전이 이주한 곳이 보성의 ‘강산리’였기 때문이라는 설과 그가 한양의 공연에서 보여준 탁월한 기량에 감복한 대원군이 “네가 강산 제일(第一)이다”는 극찬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작(唱者)이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唱)와 아니리(사설)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는 국악의 종류를 말한다. 판소리의 중흥조인 신재효는 판소리꾼이 구비해야할 요건으로 ‘인물지례, 사설지례, 득음(得音), 너름새(동작)’ 등 4가지 법례를 들었다.

판소리는 조선중기까지 무려 12마당에 걸쳐 존재하였지만, 조선후기에 들어 신재효에 의해 대본의 내용이 정리되고 예술적으로 정제되면서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 5마당으로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와 충청도 서부, 경기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 전승하면서 지리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른 유파가 발생하였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東便制), 전라도 서남지역은 서편제(西便制), 경기·충청도지역은 중고제(中高制)라 하여 3개의 법제가 존재한다.

동편제는 윤봉·구래·순창 등 전라도 동북지역에 전승되어 오는데, 순조 때의 명창 송흥록(宋興祿)에서 박만순·송우룡·송만갑·유성준으로 전해졌고 세부 분파로 ‘김세종제’가 추가된다. 동편제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꾸밈음)로 짜여 있어 남성적이다.

서편제는 보성·광주·나주·담양 등 전라도 중서부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소리제로 철종 때의 명창 박유전(裕淵)을 비조로 이날치·김재만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에 정정업·김창환·김봉학 등이 큰 줄기를 이루었다. 서편제 소리는 비교적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어 여성적이다.

이밖에 경기·충청지역에서 발달한 중고제는 김창룡·염계달 등의 명창이 있었으며 동편제에 가깝다.

보성소리를 일컫는 정음민의 심청가는 정관진·성우항·안재봉·성창순·조상현이 이어 받았고, 수궁가는 정관진·조상현, 적벽가는 정관진에게 전승되었다. 보성소리는 정재근-정음민-정관진 등 보성(寶城)의 정씨 문중을 통해 전수되었고 이후 성창순·성우항·조상현 등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